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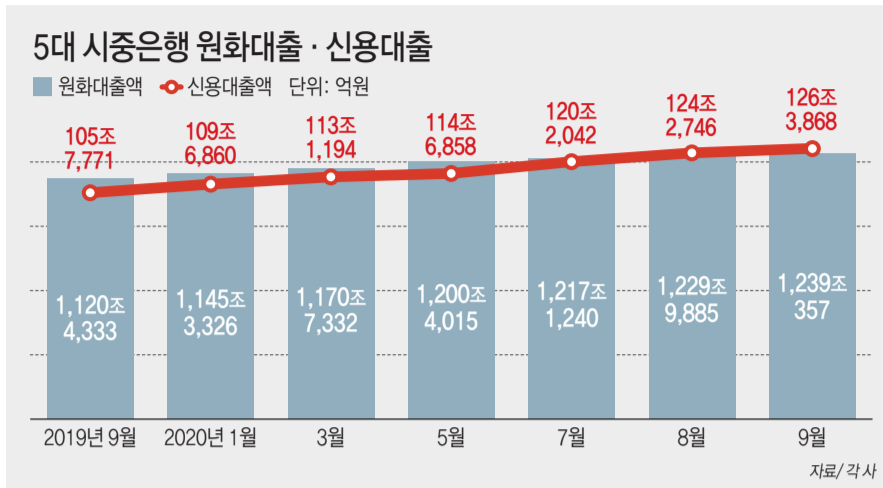
# ‘추석 + 막차’ 자금수요 몰려… 신용대출 한달새 2조 급증

5대은행 원화대출 잔액 1239조  
9월 말 기준 전월대비 9조 증가  
주식투자·규제강화 대비 움직임

은행, 우대금리 축소·한도하향 등  
신용대출 관리 구체적 방안 제출

한 달새 신용대출 잔액이 2조원이나 늘었다.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 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와 추석명절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원화대출 잔액은 1239조 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9조 47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 원화대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증가세는 신용대출에서 두드러졌다. 9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 3868억원으로 한 달 새 2조



1122억원이 급증했다.

이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 주식 투자 수요가 증가한 데다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강화에 대비해 미리 한도를 받아놓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을 위한 신용대출이 증가했다”며 “여기에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 청약 첫날인 지난달 1일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은 1조8034억원이 증가했다. 8월 한달 전체 증가액의 44%가 하루 만에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추석명절 시기와 맞물려 신용대출에 의지한 가계·영세자영업자들이 많아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신용대출은

별도의 담보 없이 개인신용등급과 직장 등을 검토해 이뤄지기 때문에 담보대출 대비 리스크가 높다”며 “이번주부터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되 서민금융기조에는 어긋나지 않는 방안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신용대출 축소방안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신용대출 상품 중 8개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도도 낮춘다. 의료인, 법조인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일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축소하고,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6일부터 ‘우리 윈(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우리금리를 일제히 연 0.4%포인트 줄인다.

신한은행은 경찰, 소방, 세무 공무원 등 직군별로 세분화 돼 있는 공무원 전용 상품의 한도와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은행에 비해 취급 규모가 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13조원대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하나은행도 다른 은행들이 내놓은 방안과 보조를 맞춰 상품별 한도와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에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작성해 냈다”며 “올해 말까지 3개월동안 최대한 증가율을 낮춰 연 성장률을 낮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거리두기 지키며 한국어 수업 들어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수정전(옛 집현전 터)에서 열린 ‘2020 세종학당 집현전 한국어 교실’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한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에 국가산단 생산·수출 부진

전경련, 산업단지 동향 통계분석  
생산 8.4%, 수출 13% 감소 기록  
6분기째 평균가동률 80% 밑돌아

국가산업단지가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생산과 수출 모두 크게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지동향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국가산업단지가 전년 동기과 비교해 생산 8.4%, 수출 13% 감소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평균 가동률도 1분기와 2분기 각각 77.8%, 72.2%를 기록하며 2018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평균 가동률 80% 밑을 유지했다.

특히 2분기는 1분기보다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생산과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5.3%, 27.5% 급감하며 1분기보다 훨씬 저조했다. 2분기 가동률도 분석을 시작한 2018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16.8%, 섬유·의복이 -13.5%로 심각한 부진을 겪었다. 기계도 -8.3%나 뒀다.

수출액도 석유화학이 -18.4%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전기·전자 (-17.4%) 철강(-16.0%) 역시 비슷한 침체에 빠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부진했다. 상반기 지방 국가산업단지 생산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14% 감소했다. 수도권도 4.9%, 6.5% 저조한 실적이었지만 지방보다는 심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상반기 고용도 전년 동기 대비 1.2%나 쪼그라들었다.

전경련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며 “노후 산업 개조, 수출 컨설팅 지원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카뱅·케뱅 등 ‘금융기관 해킹’ 주의보

금감원 ‘전자금융 침해사고 현황’  
최근 5년 침해사고 총 37건 발생  
대응체계 마련에 특별한 피해없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 해킹 공격 주의보가 발령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한국거래소에 이르기까지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지난 8월까지)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총 37건 발생했다.

전자금융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파비되는 등의 사고를 뜻한다.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을 상대로 해킹을 통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유출하거나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를 발생 시켜 접속 지연이나 서버 다운 등의 피해를 주는 디도스(Dos) 공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유출 7건, 시스템위변조 5건, 악성코드 감염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침해사고가 발생한 국내 금융기관은 총 6곳이었다. 이 중 디도스 공격을 받은 곳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모바일 뱅킹에 대한 디도스 공격), 11번가(홈페이지), 한국거래소(홈페이지) 등 4곳이었다.

다만 국제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특별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일에도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디도스 공격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들 은행도 준비된 절차에 따라 잘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산운용은 서버 침해 공격으로 내부자료가 유출됐고, 폐퍼저축은행은 인터넷망 웹메일에 악성코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해당 기업과 금융시장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침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tvin@

## 내년 경제성장률 2.7% 전망… “경기회복 제한적”

하나금융연구소, 2021 전망 보고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되면 3.6%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더라도 경기회복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연구소는 5일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봉쇄 강도에 초점을 맞춘 ‘2021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백신 개발이 진전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3.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확산세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2.7%, 겨울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되더라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유탄 연구위원은 “소득여건 악화와 취약계층 피해 확산 등으로 소비 회복이 제한적인 가운데 해외수요의 부진한 회복에 따라 수출 개선도 미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시장금리가 장기불을 중심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단기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금리의 경우 대외금리 상승과 수급부담 영향을 받아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과 해외투자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환율 하락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환율이 올해 4분기 1175원에서 내년 4분기 1155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코로나 발 충격을 완화했으나 향후 정책효과의 지속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 및 경기회복의 불균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